월요광장

정치 담론에서의 감정과 사실-북핵의 수사(修辭)

김우창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북한에서 발표되는 전쟁위협이 매일 격화되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남쪽도 대체로 그 가능성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의 삶의 궤적이 너무 험난했고, 지금도 삶의 안정감이 크다고 할 수만은 없으므로 전쟁을 미리 걱정할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다.

6·25 전쟁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핵무기를 포함하여 그때와 비교할 수 없게 강화된 무력과 군사력으로 맞부딪게 되는 전쟁은 한반도를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판단은 북이나 남의 정치 체제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북의 정치·경제, 인권 상황 등에 대하여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는다. 그러나 참으로 넓게 생각한다면, 역사적으로나 정치 체제의 스펙트럼의 크기로 보아 북의 체제를 있을 수 없는 체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프랑스 혁명기에 영국의 보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면서도 그러한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 프랑스 혁명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영국의 경우는 그것이 전통이고, 프랑스에서는 이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체제의 근거는 전통이고, 역사적 선택이다. 진보주의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에게도 정치 제체의 기본이 되는 것은 집단적 관습(하비투스)이다. 그렇다면 체제는 역사의 자기 선택이라는 면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흑백의 양면을 갖게 마련이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조차 무의미한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라도 그 가공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에, 전쟁 위협은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추측이 옳을는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유감스러운 것은 그 수사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수사는 사실을 논의하자는 것 또는 심지어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혐오와 적개심을 격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나오는, '불바다', '불도가니', '최종적 파괴' 등의 언어는 선악, 옳고 그름의 변별을 일체 포기한 전면적 파괴를 말한다.

어떤 정치이론들에서 공리로 내세우는 것은 피아(彼我)를 구분하여 적을 분명히 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국가적 결속의 조건이라고 한다. 북의 증오는 이것을 의도하는 것일까?

부정적 감정은 대체로 개인적인 욕설로 표현된다. 이것은 불러 일으켜진 감정이 공분(公憤)보다는 개인적 미움이 되게 하여 전체 공공 영역의 품위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냉정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사라진다.

그 공간에서 수사가 사실을 떠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신문에 인용되는 노동신문에 실린 말로서, 북의 군사력에 관하여, "자주권 수호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라든가, 미국의 국력에 대하여, 미국이 그 '적대시 정책'으로 북을 희생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자살행위일 뿐이다"는 발언 등은 객관적인 사태 검증에 기초한 것일까?

그러나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수사법-낮은 품격의 분노를 촉발하고 사실을 자신의 주장에 비틀어 맞추어 사람들의 감정을 동원하고자 하는 수사법은 남의 정치 담론에서도 드물지 않다. 그 경우 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설득과 타협이 나올 공간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헤밍웨이의 리얼리즘을 정의하는 말에, "영광, 명예, 용기, 성스러움과 같은 추상적인 말은, 마을의 이름, 도로의 번호, 강물의 이름, 군부대 번호, 날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담패설처럼 지저분하다"라는 것이 있다. 전쟁의 체험에서 그 무의미를 깨달은 병사가 하는 말이다. 헤밍웨이의 작품에 명예나 용기와 같은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구체적인 사실들부터 절로 나온다. 격앙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은 전쟁을 생각할 때나 인생을 생각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결정과 타협은 다음에 온다.

법조칼럼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필자는 최근에 최근 최고 흥행작으로 평가되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고 나서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영화 1편을 떠올렸다. '인생은 아름다워'. 두 영화가 어린 자녀를 교도소나 수용소에 데리고 들어간다는 개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설정을 하고 있지만, 관객에게 웃음과 슬픔과 감동을 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가 단란했던 평범한 가족의 행복이 풍비박산이 나고,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수용소에서의 슬픈 이야기에 왜 하필 이러한 제목이 붙인 것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영화에 감동하는 것일까?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필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은 생각들이다.

아마도 기술의 발전은 비약적 수준으로 이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학력 수준과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에 반비례해 인간성 상실의 정도는 커져만 갈 것이다. 그 가운데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야말로 우리들 삶의 각박함을 완화해주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회계층이 양극화되고, 인간과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불합리와 불의로 인해 힘들어하고, 제로섬게임과 같은 비인간적인 경쟁구조에 몸서리를 친다고 해도 우리들 삶을 버티어가는 이유는 '인간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양심'일 수도 있다.

사람은 저마다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고 지내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갈망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러한 사랑과 헌신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접하게 되면, 정서적 지지와 호응을 보내면서 우리들 삶을 되돌아보고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도라'는 유태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의 삶을 가족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유태인 수용소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귀도'는 생지옥과 같은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곳에서의 불의와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린 아들에게 그것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설명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심어줬다. 심지어 독일군에게 총살당하기 직전의 극한의 상황에서조차도 생의 마지막 순간의 몸짓과 눈빛까지 온전히 어린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 희생을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숙연해지고,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었다.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와 관련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제목의 모티브가 된 러시아의 비운의 혁명가인 레온 트로츠키의 말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트로츠키는 멕시코에 망명해 1940년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에게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그 절망과 극단적인 최후의 상황에서도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로츠키가 그와 같이 말한 이유는 세상의 불평등, 부조리,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실천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귀도'의 희생이 '도라'와 '조슈아'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었던 것처럼,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어린 딸 '예승'이를 향한 아빠 '이용구'의 모습, 영화 '레 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신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얻은 '장발장'이 '코제트'에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배려하는 모습,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오스카 쉰들러'가 보여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발로한 용기와 희생의 모습, 내전으로 황폐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한 '이태석' 신부의 삶의 모습.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수많은 기부천사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삶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기고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건립'이 민주주의다

유종성
광주시 대변인

"It is an honor to be in the city of brave woman and men, and to feel one with them. 용감한 시민들의 도시에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아웅산 수지 여사)

세계인들에게 있어서 '광주'는 용감한 시민들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다. 우리나라 어느 고장인들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은 곳이 있으랴만 광주만큼 민주주의의 상흔이 깊은 곳이 흔치않다. 굳이 5·18민주화운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광주는 일제강점기 3·1독립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서 조국광복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해온 '의향'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이었던 '3·15의거' 또한 발원지로 알려진 경남 마산보다 3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1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여한 광주 금남로 '곡(哭)민주주의 장송 데모'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민주도시' 광주가 시쳇말로 '멘붕'이다. 전직 대통령의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건립' 공약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폐기되며 '민주성지' 광주의 브랜드마저 빼앗길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산'에서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유치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들은 지난해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한국민주주의 전당'의 마산 유치를 공약한 바 있고, 3·15의거와 부마항쟁으로 우리나라 민주역사의 물줄기를 두 번이나 바꾼 마산이 전당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고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부지 선정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다 2007년 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며 탄력을 받는 듯했다.

우리 시에서도 전당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18사적지인 옛 국군통합병원과 현 광주교도소 일원을 전당 후보지로 지정하는 등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6일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청소년들이 민주·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과 5월 유공자 주거시설을 함께 배치해 민주주의·인권 교육과 관광 효과를 동시에 거두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업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접근성 등을 이유로 서울 남산의 옛 중앙정보부 자리에 건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애초 '전당의 광주 건립'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公約)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지지 못한 어떤 설명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그야말로 공약(空約)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렇게 실패한 공약을 대선이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 마산 시민에게 슬그머니 대선공약으로 내밀어 영·호남 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했다.

대통령 공약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는 단연 '광주'라고 자부한다. 광주는 '프랑스 인권선언' 등 세계 14건의 민주인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가진 '민주·인권의 도시'이다. 이처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광주'가 '전당의 최적지'가 아니고 어디이겠는가?

진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5년 동안 광주 시민을 농락했던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건립' 공약을 지켜야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학업보다 알바 우선…악순환 고리끊을 대책 시급

"공부하러 왔는데 학기 내내 알바만 한 기억밖에 없어요"

엊그제 대학생들이 입학을 했다. 학생들은 어렵게 공부해 대학에 갔지만 결국 입학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린다. 바로 입학금과 4년 내내 가계를 옥죄는 등록금이다. 어떤 학생은 정말 대학에 가기 위해 밤을 낮 삼아 공부했는데 결국 학비 때문에 4년 내내 아르바이트만 한 기억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그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도중에 휴학하고, 알바하고, 그렇게 벌어도 감당이 안돼 결국 학자금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취업이 안 돼 대출한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이 험난한 현실….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은 학업보다 아르바이트가 우선이다.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반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학교 수업은 일부러 오후 6시 이후 시작하는 강의만 골라서 듣는다. 주말에도 오전부터 10시간 가량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지만 이렇게 버는 돈은 100만 원 남짓. 학교에서 받는 돈은 80만 원이고 시급 4300원이 조금 넘는 주유소에서는 한 달 평균 30만여 원을 받는다. 차비와 책값 등 생활비를 제외하면 아무리 아껴 써도 300만 원이 넘는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조차 힘들다. 당연히 학업은 뒷전이 됐다. 일하는 틈틈이 리포트를 쓰고 강의를 복습하는 게 공부의 전부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너무 피곤해 곯아떨어지기 일쑤다.

취업을 하려면 남들처럼 학점과 스펙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여력이 생기지 않으니 취업전선에서도 밀리는 것이다. 이 빈곤의 악순환을 누가 어떻게 끊어줄 것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유남규·광주시 동구 계림동

社說

안전불감증이 부른 여수산단 대형 참사

지난 14일 밤 여수산업단지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폴리에틸렌이 유출되면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데 이어 9개월도 안돼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니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참사는 폴리에틸렌 원료를 저장해 둔 사일로 내 잔류 분진 등에 용접 도중 불꽃이 인화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협력업체 직원 18명이 사일로 난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1차 폭발에 이은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치솟은 화염과 충격에 11명의 사상자를 냈다.

목격자들은 사고 원인이 사일로 내부에 남아있던 분진이 불꽃과 반응하면서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로 속의 분진을 다 빼냈는지 확인하고,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회사 측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공사 단축을 위해 무리한 야간작업까지 강행한 게 화를 키운 것이다.

여수산단은 지금까지 200여 건의 사고에,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해 '화약고'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회사들의 안전의식이나 안전대책은 찾기 어렵다. 특히 공장들 대부분이 40여년 지난 노후화 건물로, 이번 사고 역시 공장이 낡아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참사를 불렀다. 산업단지의 재난관리체계가 환경부와 자치단체, 소방서 등으로 3원화돼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각종 대책 마련이니, 점검 강화니 목소리가 높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얼마나 더 큰 사고가 터져야 당국이 정신을 차릴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 및 발생 후 신속한 후속 대책 등을 위한 종합재난방제센터를 서둘러 건립해야 한다. 또한 화학공장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사고 회사에 엄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참사 피해자에 대한 장례와 보상 등 충분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용지물' 학교 CCTV 전면 재정비하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광주·전남 학교에 설치된 1만여대의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즉시 대응에 한계가 있고, 화질도 떨어져 식별조차 어렵다고 한다.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305개 초·중·고에 2791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전남 834개교에 7317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장애물로 인해 위치가 부적절하고 화질도 50만 화소 이하가 대부분이라 사고 발생시 식별을 못하거나 차량 번호판 확인도 힘든 상태다. 또 적외선 기능이 없어 야간사고 때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도도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다. 전담경찰관 1명 당 20개교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더라도 시간적으로 CCTV를 점검할 엄두도 못낸다. 이런 상태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광주경찰청의 방범용·어린이보호용·차량인식용 CCTV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총 491대의 CCTV 중 112대만 100만 화소 이상일 뿐 나머지 379대는 41만 화소에 불과하다. 이 수준으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 경북 고교생 자살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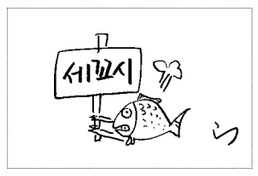
정부가 엊그제 학교폭력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학교에 고화질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폭력서클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니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만은 확실한 대책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꼬시와 뼈째회

대학 신입생들이 꿈꾸는 낭만 중 하나는 아마도 서클 활동일 게다. 취향에 맞는 '서클'(Circle)에서 활동하다 보면 정작 학과 보다 더 정을 쏟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적어도 대학가에서는 서클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즈음이었던듯 하다.

대신 '동아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 대학발(發) 단어는 이후 사회 전반에 퍼졌고, 지금은 동아리라는 말이 보편화됐다. 수십년 동안 사용되어온 외래어를 우리말이 대체한 긍정적인 경우다. 국어사전에는 '동아리'를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패를 이룬 무리'로 적고 있다.



흔히 '세꼬시'라고 부르는 '세고시(せごし)'는 작은 생선을 손질하여 통째로 잘게 썰어낸 생선회를 말한다. '세고시'는 어떻게 순화시킬 수 있을까. 국립국어원이 내놓은 대안은 '뼈째회'다.

국립국어원(malteo.korean.go.kr)은 2004년부터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다듬은 말'을 선정하고 있다.

3월에는 '세꼬시' 이외에도 '자신만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늑하고 따뜻한 음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한 '슬로푸드(Slow food)'가 '위로음식'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일자리가 있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다듬은 말은 '근로빈곤층'으로 선정됐다.

'다듬은 말'은 매달 몇개의 단어를 선정해 누리꾼들의 의견을 받은 후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이 선정 기준이다.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다. 현재 국립국어원이 정한 '다듬은 말'은 350여개. 아직 어색한 단어들도 있지만 '댓글'(리플), '참살이'(웰빙), '누리꾼'(네티즌) 등 많은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위치를 확고히 한 단어들도 많다.

'오디오북'과 '북마스터'. 현재 의견을 받고 있는 단어다. 당신은 어떻게 다듬고 싶은가.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49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12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디자인실	2200-536
사회부	2200-616	프로젝트팀	2200-555
〈대표 FAX	222-4267〉	문화사업국	2200-541
경제부	2200-663	〈FAX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6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1	〈FAX	227-9500〉
체육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FAX	02-773-9335〉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